



한미 정상회담이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대우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격화된 미·중 간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한국이나 일본을 중국과 멀어지게 하면 중국의 추격을 늦추거나 좌절시킬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를 빌미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미국 역할의 분담)와 한미일 군사 협력(중국 봉쇄 효과 증대)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미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최신인 평택 기지는 또한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깝다.

한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의 기술적 추격을 따돌리고, 현 군사력 수준에 걸맞은 국제적인 활동 범위와 위상을 확보하려고 한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반도체 등의 직접투자(FDI)를 줄인 반사이익을 한국 등이 얻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대가로 한국을 G8에 포함시켜 위상을 높여 줘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종합하면, 한미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장 핵심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군사적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위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회담이다.



동맹 강화의 모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얻을 게 있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면서 성장을 해 온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견제와 보복도 감수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과 성급하게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만만찮다.

이런 요인들은 현재 윤석열의 한미동맹 강화 노선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지배계급이 다시 분열하는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큰 대가를 바란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려면, 그만큼 대체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틈새 시장만 열어 줘도 되

는 예전의 꼬마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게 그럴 여유가 있는가?

한미동맹의 앞길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버킷리스트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윤석열이 얻어 내야 할 것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주문도 늘고 있다.

특히 미국 반도체법과 IRA법 관련 규제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기업 기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한 것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지지한 기업주들에게까지 불만을 샀다.

삼성과 SK는 미국 공장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고 있다.

핵발전소 수출 문제도 불거졌다. 핵발전소 원천 기술 규제 문제로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한국의 핵발전소 수출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반면, 군사 안보 협력은 한미일 협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더 확실한 핵우산을 바랄 것이고, 미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개입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타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의 위기는 깊어질 것이다.



극우와 헤어질 결심 못 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국힘) 최고위원들이 극우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뿜고 있다.

태영호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망발했다. 항의가 잇달았지만 태영호는 사과를 거부했다.

김재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자마자 극우 목사 전광훈을 찾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광훈은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유포해 온 극우 인사로,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재원은 전광훈의 지원을 받아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답례로 김재원은 전광훈이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아첨했다.

극우 정치인들이 4·3 제주 항쟁, 5·18 광주 민중 항쟁을 북한의 소행으로 매도하는 것은 섬뜩하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민을 도륙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등 일부 국힘 정치인들은 전광훈과 선을 그으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아웃사이드들이 주류 정치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의 전광훈 배제 주장은 위선적이다. 홍준표 자신이 전광훈이 주도해 2019년에 결성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국힘 지도부는 전광훈과 결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 대표 김기현은 전광훈과 유착해 있는 김재원의 징계를 거부했다.

김기현 자신이 당 대표 선거에서 전광훈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광훈은 한때 보조를 맞춰 온 황교안과 결별하고 김기현을 지지했다. 김기현은 2019년 전광훈이 주도한 집회에 참가해 “전 목사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아첨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아시리아 제국에 의



한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며 경고했다.)

정치적 양극화

지난 10년 간 세계 여러 곳에서 주류 우파 정치인과 극우의 연계는 국제적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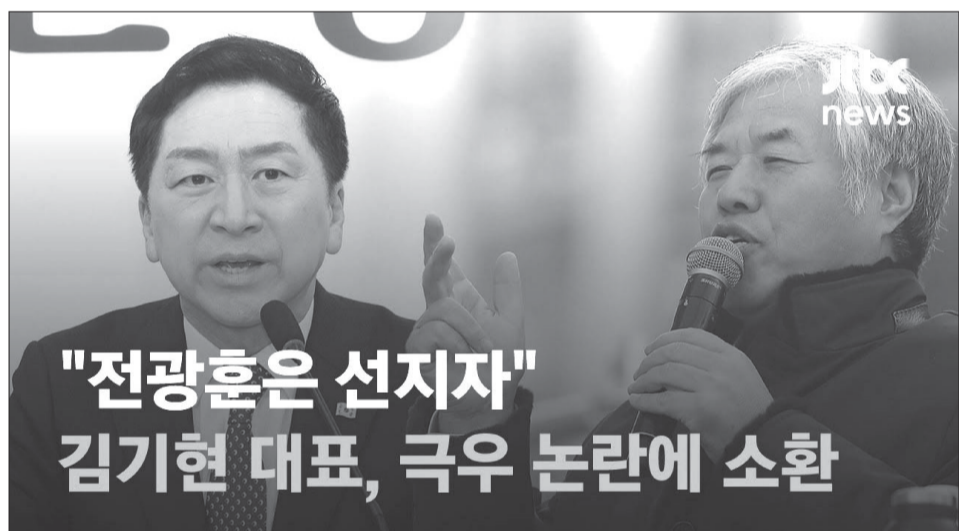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는 주류 우파와 극우 간 경계선에 균열을 낸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이다.

주류 우파와 극우의 이런 연계는 트럼프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었다. 2016년 이래 영국·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됐다.

국힘은 전통적 주류 우파 정당이지만, 당 밖 극우 세력과 줄곧 유착해 왔다. 주류 우파와 극우 사이에 세워진 장벽은 특히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앞에서 언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본부장이 현재 국힘 상임고문인 이재오였다. 그 조직의 결성식에 주호영이 참가했고, 오세훈·권성동·김기현·정진석·장제원 등이 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비주류 우익의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 밀려 약화된 우파의 세를 회



복하는 데 일정 구실을 했다. 물론 우파의 회복을 도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었다.

그래서 국힘은 극우의 꼬리를 자르기 보다는 유화적 태도를 취하며 이용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금 국힘 정치인들이 극우의 언사를 발하고 극우 세력과 교제하는 것은 참여해지지는 경제적·지정학적·정치적 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국내외 복합 위기들로 인해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나 유권자들이 상호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갈라진다는 뜻이

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힘 정치인들은 극우의 언사를 사용해 우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굳히려 한다.

윤석열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 것도 우파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국힘의 이런 시도가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 같지는 않다. 4·5 보궐 선거는 정부·여당의 우익적 행태에 대한 반감이 광범하다는 것을 언뜻 보여 줬다.

대중의 반감과 분노를 이용해 윤석열 반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9강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4월 12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412-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